

최저개발국(LDCs) 현황과 지역별 협력 방안: GNI, HAI, EVI 지수를 중심으로

김소은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kse@kiep.go.kr, 044-414-1335)

정민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mjeong@kiep.go.kr, 044-414-1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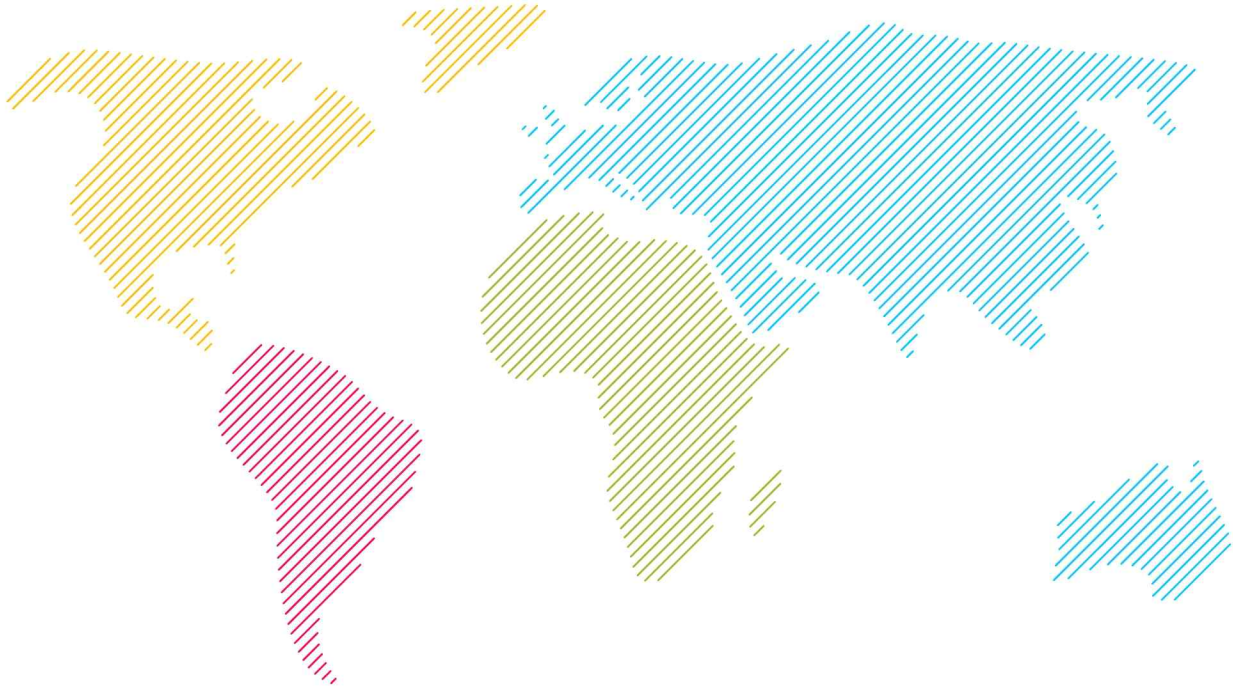
남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yoojin@kiep.go.kr, 044-414-1330)

최저개발국(LDCs) 현황과 지역별 협력 방안

GNI, HAI, EVI 지수를 중심으로

요약

- ▶ 2023년 3월 9일 제5차 유엔 최저개발국 회의 개최 이후 국제사회는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 최저개발국의 경제 및 사회적 자립 달성 정도와 협력 방안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함.
 - 금번 제5차 최저개발국 회의에서는 ‘2011-2020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을 평가하고, 새로 채택된 ‘2022-2031 도하 행동계획(DPoA)’에 대한 국제사회의 달성 의지를 확인함.
 - 도하 행동계획은 △빈곤퇴치 및 역량 강화 △혁신을 통한 SDGs 달성 △최저개발국의 구조적 변화, △최저개발국의 지역 통합 강화 △기후변화, 환경파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및 미래 충격에 대한 회복력 구축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등 6가지 의제를 강조함.
 -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및 국가별 맞춤 수요 지원 등을 강조하며, 최저개발국 지원에 대한 공동 목표인 도하 행동계획을 채택해 최저개발국의 △빈곤 △불평등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할 것임을 표명함.
- ▶ UN이 제시한 최저개발국의 경제·사회적 자립 수준 척도인 △1인당 국민소득(GNI) △인간 자산지수(HAI) △경제·환경 취약성 지수(EVI)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점협력국 중 최저개발국 1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함.
 - 1인당 GNI의 경우, 해당국의 기초 소득을 분석하였으며, 건강 및 교육 지수를 반영한 HAI는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및 건강에 대한 기초적 환경을 알 수 있으며, EVI는 지리적 환경 요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어 의미가 있음.
 - 다만 해당 지표는 한국의 중점협력국 중 최저개발국 10개국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기초적 자립 수준의 정도 및 현황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이므로 분석 방법과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향후 더 넓은 범위에서 일반협력국과의 협력 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 분석 결과, 대부분 국가가 지리 및 기후 요소가 반영된 EVI보다 정책 및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극복이 가능한 HAI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은 진척도를 보이고, 그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순으로 분석됨.
 - [아시아 5개국] 아시아에서 HAI 기준 가장 높은 진척도를 보인 국가는 방글라데시이며, 이후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국가가 일정 수준을 달성해 최저개발국 지위 졸업 이후의 전환 등에 대한 정책적 준비를 하고 있음.
 - [아프리카 5개국] 아프리카 또한 HAI 부문에서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순으로 나타났으나, 아프리카의 경우 HAI와 EVI 달성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므로 이에 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이에 따라 지수 달성 수준이 높고 최저개발국 지위 졸업의 주요 요건을 충족한 아시아 5개국에 대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ODA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경제 전환 이후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프리카 5개국은 국가 간 HAI 및 EVI 편차가 큰 상황이므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차 례

1. 서론
 - 가. 연구목적
 - 나. 분석 방법 및 범위
2. 국제사회 내 최저개발국(LDCs) 동향
 - 가. 제5차 LDCs 회의 주요 내용
 - 나. 한국의 중점협력국 현황
3. 지역별 중점협력국 분석: GNI, HAI, EVI 지수를 중심으로
 - 가. 동남아
 - 나. 남아시아
 - 다. 아프리카
4. 한국의 대중점협력국 협력 방안
 - 가. 지역별 중점협력 방안
 - 나. 종합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가. 연구목적

■ 2023년 3월 9일 제5차 유엔 최저개발국 회의 개최 이후 국제사회는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 최저개발국의 경제·사회 발전 현황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함.

- 최저개발국 회의는 1981년부터 10년 주기마다 유엔 총회를 개최해 최저개발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임.
- 금번 제5차 최저개발국 회의에서는 ‘2011-2020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 Istanbul Programme of Action)’을 평가하고, ‘2022-2031 도하 행동계획(DPoA: Doha Programme of Action)’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행 및 목표 달성 의지를 확인함.
- 2022년 UN 기준 46개 국가가 최저개발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개 국가가 최저개발국 지위를 졸업함.¹⁾
 - 기졸업 국가는 보츠와나(1994년), 카보베르데(2007년), 몰디브(2011년), 사모아(2014년), 적도 기니(2017년), 바누아투(2020년)로 대부분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임.
 - 앙골라, 투발루, 키리바시, 부탄, 상투메 프린시페, 솔로몬군도, 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등은 일정 수준을 충족했으나 코로나19 발발, 기후변화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졸업이 연기됨.

■ 우리나라는 본 회의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및 국가별 맞춤 수요 지원을 강조하며 ‘도하 행동계획’을 채택해 최저개발국의 △빈곤 △불평등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할 것임을 표명함.

- 2023년 3월 8일 외교부 이도훈 제2차관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및 수원국 보건 분야 지원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 책임에 일조하고 있음을 강조함.²⁾
 - 기조연설 및 토론을 통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ACT-A: Access to COVID-19 Tools-Accelerator)’과 글로벌 펀드를 통한 재정적 지원을 설명함.
- 현 정부는 올해 초 2023년 ODA 예산을 전년대비 27.6% 증가한 4,036억 원으로 책정하여 분쟁, 기후변화, 감염병 대응 등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늘려 한국을 세계 10위권 ODA 공여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³⁾

■ 본 자료는 새롭게 시작되는 ‘2022-2031 도하 행동계획(DPo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한국의 중점협력국을

1) United Nations(2021), ‘Handbook on the LDC Category,’ p. 4.

2) 외교부(2023), 「이도훈 제2차관, 제5차 유엔 최저개발국 총회 참석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최저개발국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의지 표명」, 보도자료(검색일: 2023. 4. 18).

3) 정책브리핑(2023), 「[보도자료]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보도자료(검색일: 2023. 4. 18).

대상으로 UN이 제시한 주요 검토 지수를 바탕으로 국별 환경을 분석해 한국의 對중점협력국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자료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등에 따른 동남아 및 남아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방안과 2024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분석 방법 및 범위

- 본 자료는 UN 산하의 개발정책위원회(CDP)가 3년 단위로 최저개발국의 경제·사회적 개발 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하는 △1인당 국민소득(GNI) △인간자산지수(HAI) △경제·환경 취약성 지수(EVI)에 근거하여 분석할 예정임.⁴⁾
- UN CDP(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는 3년에 한 번씩 최저개발국이 자립할 수 있는 발전 정도를 크게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인간자산지수(Human Asset Index) △경제·환경 취약성 지수(Economic and Environmental Vulnerability Index)로 구분함.⁵⁾
- UN은 상기 지수를 기준으로 동시에 2개 조건을 2회 이상 충족하는 경우 자립할 여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해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및 UN 총회를 거쳐 최종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최저개발국 지위 줄업을 결정함(그림 1, 표 1 참고).
- [1인당 국민총소득(GNI)] 최저개발국 진입 및 졸업요건은 3개년 1인당 평균 국민총소득(GNI)에 따라 결정됨.
 - 3개년 1인당 평균 GNI가 1,025달러 미만인 국가는 최저개발국 진입 대상이며, 3개년 1인당 평균 GNI가 1,222달러 초과 시 최저개발국 지위 졸업에 대한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함.
 - 다만 ‘소득에만 기초한 졸업 규정(Income-Only Graduation Rule)’에 따라 1인당 GNI가 기준치 1,222달러의 2배 이상(약 2,460달러 이상)이고, 해당 1인당 GNI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다른 지수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함.⁶⁾
- [인간자산지수(HAI)] 영양 지수 및 사망율을 기초로 한 건강지수와 학교 등록률, 성인 문해율 등으로 구성된 교육지수로 구분되며, 건강지수와 교육지수를 1/2씩 HAI에 반영해 총 66 이상일 경우 기준을 충족함.
 - 건강지수: 1천 명당 5세 미만 아동 사망 지수, 발육부진 지수, 신생아 10만 명당 산모 사망 지수 등
 - 교육지수: 중학교 등록 지수, 성인 문해력 지수, 중등교육 등록 부문의 성평등 지수 등
 - 다만 UN CDP 검토 기준에 따라 건강지수에 포함된 아동과 산모의 사망 및 발육부진 지수는 교육지수와 같이 지수가 높을수록 우수한 상태이며, 낮을수록 부진한 상태임.
- [경제·환경 취약성 지수(EVI)] 자국 내 산업 및 무역 관련 경제적 취약 지수와 자연재해 및 해안가 거주자 비율 등에 대한 환경 취약성 지수로 구분되며, 각 지수를 1/2씩 EVI에 반영해 총 32 이하일 경우 기준을 충족함.
 - 경제취약지수: 농림어업 비중, 고립 및 내륙성 정도, 수출 집중도, 수출 불안정성 등
 - 환경취약지수: 해안가 거주 인구, 건조지역 거주 인구, 농업 불안정성, 자연재해 피해인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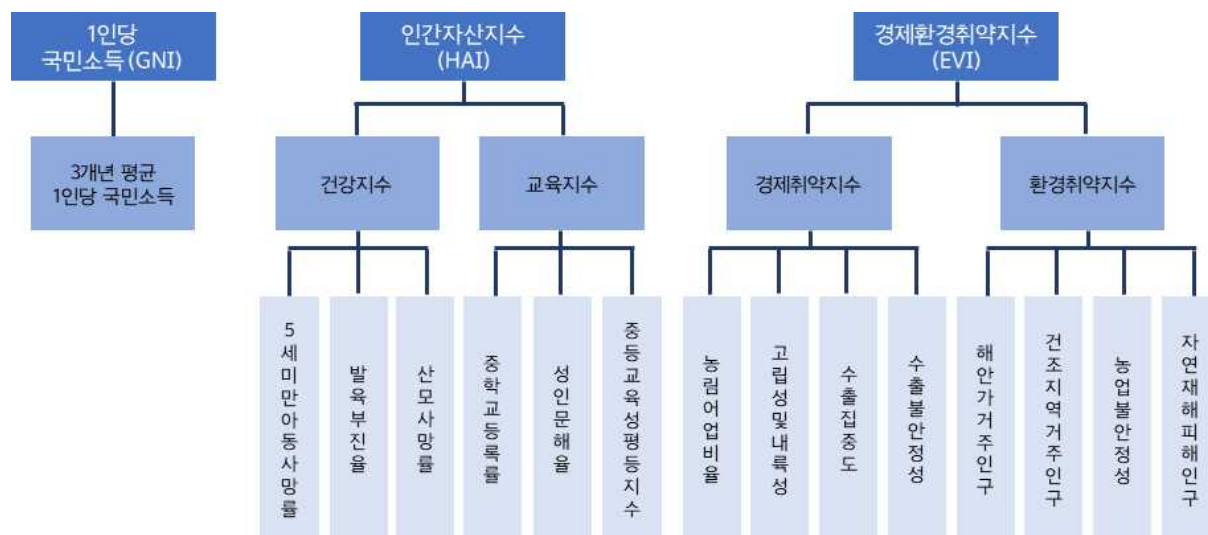
4) 본 자료는 UN LDC Data 내 Official triennial review Dataset(2000-2021)을 이용하여 작성함.

5) United Nations(2021), ‘Handbook on the LDC Category,’ pp. 8-9.

6) United Nations, ‘Least Developed Countries Category,’ 온라인 자료, <https://www.un.org/ohrrls/content/ldc-category>(검색일: 2023. 2. 14).

- 다만 경제취약 지수와 환경취약 지수의 경우, UN CDP 검토 기준에 따라 낮을수록 우수한 상태이며, 높을수록 부진한 상태임.

그림 1. 최저개발국 경제·사회적 환경 분석 요소



자료: United Nations(2021), 'Handbook on the LDC Category'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1. 최저개발국 진입 및 졸업 기준

항목		진입	졸업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	1,025달러 미만	1,222달러 초과
	인간자산지수(HAI)	60 이하	66 이상
	경제취약지수(EVI)	36 이상	32 이하
총족 기준 수		3개 기준 모두 충족 필요	2개 기준 충족 필요
인구수		7,500만 명 미만	해당사항 없음
자격		1회 검토로 결정	2회 연속 검토
시기		즉시 유효	유예기간 3개년
당사국 승인 여부		필요	불필요

자료: United Nations(2021), 'Handbook on the LDC Category', p. 7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본 자료의 분석 대상은 한국의 주요 중점협력 중 최저개발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10개국으로 개발협력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우선순위 파트너국으로 중요성이 있음.

- 2021년에 발표된 제3기 중점협력국은 총 27개국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CIS, 중남미 국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아시아 5개국과 아프리카 5개국이 최저개발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표 2 참고).⁷⁾

- 동남아 및 남아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7) ODA Korea(검색일: 2023. 2. 13).

표 2. 우리나라 제3기 중점협력국 내 최저개발국

분류	국가	분류	국가
동남아시아 (6개국)	캄보디아	아프리카 (7개국)	우크라이나
	라오스		타지키스탄
	미얀마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르완다
	필리핀		세네갈
	베트남		탄자니아
남아시아 (5개국)	방글라데시	중남미 (4개국)	우간다
	네팔		가나
	스리랑카		이집트
	파키스탄		볼리비아
	인도		콜롬비아
중앙아시아 (1개국)	몽골		파라과이
CIS (4개국)	키르기스스탄		페루
	우즈베키스탄		

주: 노란색으로 표시된 국가가 제3기 중점협력국 중 UN 기준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됨

다만 UN 기준에 따라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되나, 세계은행 및 IMF 기준으로 중저소득국으로 분류되는 국가가 존재함

자료: ODA Korea, <https://www.odakorea.go.kr>(검색일: 2023. 2. 13).

■ 본 자료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 중 최저개발국만을 대상으로 UN의 검토 기준인 1인당 GNI, HAI, EVI 지수 한해서 분석하여 분석 대상과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향후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협력 주요 파트너국의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자립 정도와 특징을 판단하여 차별화된 지역별 지원 방향성을 고려할 수 있어 유의미함.

2. 국제사회 내 최저개발국(LDCs) 동향

가. 제5차 LDCs 회의 주요 내용

■ 금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지난 10년간 이행된 이스탄불 행동계획의 미달성 부문을 바탕으로 ‘도하 행동계획(DPoA)’ 6개 신규 의제 확인과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등임.⁸⁾

- 이번 회의에서는 이스탄불 행동계획을 평가해 최저개발국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극복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과 접목한 2022~31년 ‘도하 행동계획’ 새로운 의제 발굴 및 확인에 초점을 맞춤.
 - 이스탄불 행동계획은 기존 목표였던 △2020년까지 최저개발국의 절반 이상 졸업 △7% 이상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경제성장 △빈곤퇴치 및 최저개발국 구조적 전환 △무역 규모 2배 이상 확대 등에 대한 달성 부문에서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음.⁹⁾

8) United Nations, ‘5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LDC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4. 19).

- 상기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새로이 도입하는 도하 행동계획은 △빈곤 퇴치 및 역량 강화 △혁신을 통한 SDGs 달성 △최저개발국의 구조적 변화 △최저개발국의 지역 통합 강화 △기후변화, 환경파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및 미래 충격에 대한 회복력 구축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등 6가지 의제를 폭넓게 다룸.
- 최저개발국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빈곤 심화와 시장경쟁 내 열위 등 구조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음.
- 또한 최저개발국은 외부 공공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지난 10년간 지속 증가한 외부 부채와 ODA 및 FDI 등 자금 조달 악화 등에 따라 경제 구조의 취약성이 더욱 부각됨.
- 이번 회의에서 최저개발국은 졸업 이후에도 생산성 강화와 인프라 개발을 지속 이행하여 글로벌 가치 사슬 편입을 통해 경제 및 무역 분야에 대한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나. 한국의 중점협력국 현황

■ 한국의 중점협력국 중 아시아 5개국은 모두 경제·사회적 지수를 월등히 충족한 반면 세네갈을 제외한 아프리카 5개국은 대부분의 지수를 미충족함.

- 2021년 검토 기준 방글라데시, 라오스는 세 가지 조건을 2회 이상 달성했으며, 네팔은 1인당 GNI를 제외한 두 가지 지수를 모두 달성해 졸업대상국으로 분류됨.
- 다만 미얀마는 1인당 GNI, HAI, EVI 등 기준을 2회 이상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에 발발한 미얀마 쿠데타 등으로 인해 UN CDP가 졸업을 잠정 보류한 상태임.¹⁰⁾
- 2021년 검토 기준 1인당 GNI, HAI, EVI를 1회 충족한 중점협력국은 캄보디아와 세네갈이며, 그 외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국은 졸업요건을 미충족함.

표 3. 중점협력국 내 최저개발국 지위 졸업 요건 달성 현황(2021년 검토 기준)

구분	국가명	졸업요건 달성 여부			졸업 예정
		1인당 국민총소득 (1,222달러 초과)	인간자산지수 (66 이상)	경제환경취약지수 (32 이하)	
졸업 대상 (기준 요건 2회 충족)	방글라데시	●	●	●	2026년
	라오스	■	●	●	2026년
	네팔	-	●	●	2026년
졸업 보류 (기준 요건 2회 충족)	미얀마	●	●	●	-
기준 요건 1회 충족	캄보디아	●	●	●	-
	세네갈	●	●	-	-
기준 요건 미충족	에티오피아	-	-	-	-
	르완다	-	-	-	-
	탄자니아	-	-	-	-
	우간다	-	-	-	-

주: 국가는 졸업요건 충족한 연도순으로 나열함

졸업요건: 1인당 GNI 1,222달러 초과, 인간자산지수는 66 이상, 경제취약지수는 32 이하

단, 소득에만 기초한 졸업 규정에 따라 1인당 GNI 2,444달러 이상 국가는 ■로 표시함

자료: United Nations(2021), 'Handbook on the LDC Category,' p. 86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9) 송지선(2023), 「국제사회의 최저개발국 지원방안 논의 동향: 제5차 유엔최저개발국 총회 결과를 중심으로」, IFANS FOCUS, pp. 1~2.

10) The Business Standard(2021), 'Myanmar declines to graduate from LDC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2. 15).

3. 지역별 중점협력국 분석: 1인당 GNI, HAI, EVI 지수를 중심으로

가. 동남아

■ 2021년 검토 기준 동남아시아 최저개발국인 라오스, 미얀마는 GNI, HAI, EVI를 모두 2회 이상 충족하였으며, 캄보디아는 1회 충족함.

- [1인당 국민총소득(GNI)] 동남아 3개국 모두 1인당 GNI 기준 1,222달러를 초과하였으며, 특히 라오스는 1인당 GNI 기준요건의 2배 이상인 2,449달러로 3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소득에만 기초한 졸업 규정' 요건 또한 충족함.
- [인간자산지수(HAI)] 동남아 3개국 모두 HAI 기준 66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캄보디아(74.3), 미얀마(73.9), 라오스(72.8)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환경취약지수(EVI)] 동남아 3개국 모두 EVI 기준 32 이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미얀마가 24.3으로 3개국 중 가장 낮은 지수(높은 순위)를 기록함.

표 4. 동남아 3개국 최저개발국 경제·사회적 지수 달성 현황(2021년 검토 기준)

1인당 국민소득(GNI)		인간자산지수(HAI)		경제·환경 취약성 지수(EVI)	
국가명	달러	국가명	지수	국가명	지수
1,222달러 초과		66 이상		32 이하	
미얀마	1,263	라오스	72.8	캄보디아	30.6
캄보디아	1,377	미얀마	73.9	라오스	27.0
라오스	2,449	캄보디아	74.3	미얀마	24.3

자료: United Nations(2021), 'Handbook on the LDC Category', p. 86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검색일: 2023. 2. 14).

1) 1인당 국민총소득(GNI)

■ 동남아 3개국의 경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성장하면서 라오스(2015년 검토 기준), 미얀마(2018년 검토 기준), 캄보디아(2021년 검토 기준) 순으로 1인당 GNI 기준을 충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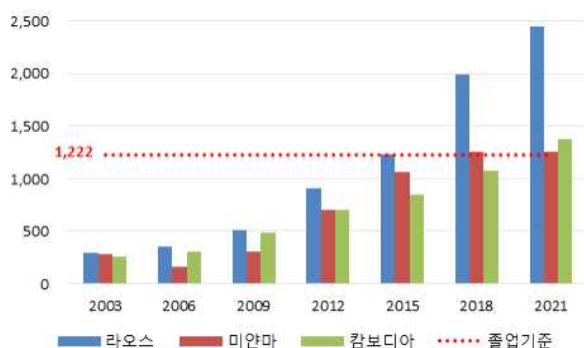
- 3개국 중 가장 먼저 1인당 GNI 기준을 달성한 라오스는 2015년 검토 당시 1,232달러를 기록했으며, 이후 2018년 검토 당시 1,996달러, 2021년 검토 기준 2,449달러로 3회 연속 1인당 GNI 기준을 충족함.
 - 라오스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 평균 약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수력발전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옴.¹¹⁾
- 미얀마는 동남아 3개국 중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라오스보다 3개년 늦은 2018년 검토 당시 1인당 GNI 1,255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이후 2021년 검토 기준 1,263달러로 연속 2

11) 김미림(2019), 「라오스의 경제 현황 및 한·라오스 경제협력 방향」, p. 6.

회 GNI 지수를 달성함.

- 2021년 세계은행 기준 미얀마는 국내총생산 650억 9,200만 달러로 전 세계 207개 중 약 80번째 경제 규모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캄보디아 26억 9,610달러(107위), 라오스 18억 8,270달러(118위) 순으로 나타남.¹²⁾
- 캄보디아는 2021년 검토 당시 1인당 GNI가 1,377달러로 최초 GNI 기준을 충족함.
- 캄보디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왔으며, 주요 경제성장 동력은 섬유 및 봉제 산업 등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전체 GDP의 약 2/3를 차지함.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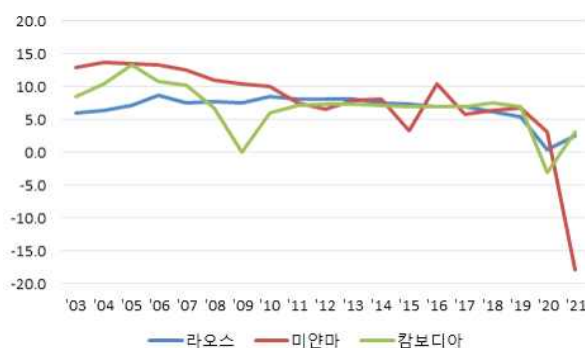
그림 2. 동남아 3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 추이(2003~21)
(단위: USD)



주: UN CDP 검토 주기에 따라 3년 주기로 표기함.

자료: UN LDC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 동남아 3개국
경제성장률 추이(2003~21)
(단위: YoY, %)



자료: CEIC(검색일: 2023. 2. 15).

2) 인간자산지수(HAI)

■ 동남아 3개국은 2018년 검토 기준 HAI 기준인 66 이상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3개국은 공통으로 중등교육 내 성평등 지수가 높은 편이나, 여전히 발육부진 부문 성취가 상대적으로 낮아 만성적 영양 결핍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동남아 3개국 중 가장 먼저 HAI 졸업요건을 달성한 국가는 미얀마로 2006년 검토 당시 약 68.4를 기록했으며, 이후 모든 3개년 검토에서 기준치 이상을 달성함.
- 미얀마는 2021년 검토 기준 라오스와 캄보디아보다 중학교 등록률과 중등교육 내 성평등 지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그림 4 참고).
- 캄보디아는 2015년 검토 당시 HAI 67.2를 기록했으며, 이후 2018년 검토, 2021년 검토에서도 모두 HAI 지수 졸업 기준 66 이상을 달성함.
- 캄보디아는 상대적으로 라오스와 미얀마보다 5세 이하 아동 사망과 산모 사망 부문에 대한 성취도가 우수한 편이나, 여전히 중등교육 내 중퇴 비율이 높은 점과 전기 및 ICT 분야 등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하다고 점이 반복 지적됨.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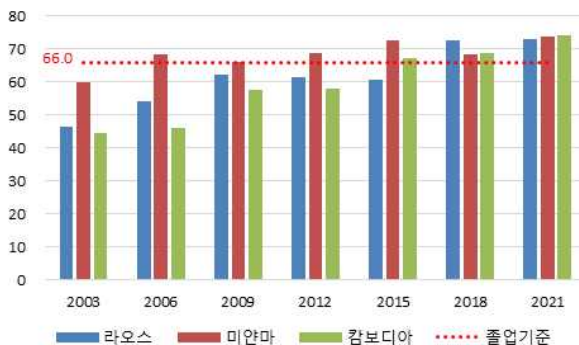
12) World Bank(2021), 'Gross domestic product 2021,'(검색일: 2023. 2. 21).

13) 정재완, 김미림(2019), 「캄보디아 경제 특징과 한-캄보디아 경제협력 방향」, p. 4.

14) UNESCAP(2021), 'Structural transformation, LDC graduation and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policy options for Cambo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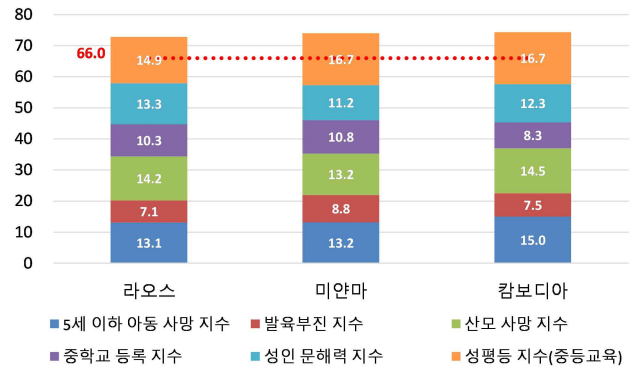
- 동남아 3개국 중 가장 늦게 HAI를 충족한 라오스는 2018년 검토 기준 72.8을 기록한 가운데 타 국가 대비 성인 문해율이 높은 반면 캄보디아와 미얀마보다 발육부진 부문의 성취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동남아 3개국 HAI 지수 추이(2003~21)



주: UN CDP 검토 주기에 따라 3년 주기로 표기함.
자료: UN LDC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5. 동남아 3개국 HAI 세부 항목 비중(2021)



주: 5세 이하 아동 사망 지수는 1,000명, 산모 사망 지수는 10만 명당 수치임.
각 세부 항목의 총합이 66 이상일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함.
또한, 요소별 면적이 클수록 우수한 상태이며, 면적이 좁을수록 부진한 상태임.
자료: UN LDC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경제·환경 취약성 지수(EVI)

■ 동남아 3개국은 EVI를 최근에 달성하기 시작했으며, 3개국 모두 △자연재해 피해인구 △고립성 △농림어업 비율 등이 높음.

- 동남아 3개국 중 가장 먼저 EVI 기준인 32 이하를 달성한 국가는 미얀마(2018 검토 기준)이며, 2021년 검토 당시 자연재해 피해인구, 고립성, 농림어업 비중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미얀마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비해 해안가 거주 인구 비중이 높은 편으로 1980~2020년 누적 기준 홍수(35.8%), 태풍(12.3%), 산사태(12.3%) 등 해안가 주변 재해에 따른 피해가 높음.¹⁵⁾
 - [경제] 미얀마의 무역 구조상 현 상태에서 LDCs 지위 졸업에 따른 특혜 제외 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미얀마 4대 교역 파트너인 EU의 관세 및 원산지 규정 부분이 미얀마 대외무역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¹⁶⁾
- 라오스의 경우 2000년대 초반 EVI 요소가 캄보디아와 미얀마보다 매우 열악했으나, 점차 완화되어 2021년 검토 기준 최초로 27을 기록해 기준치 32 이하를 충족함.
 - [환경] 라오스는 지리적 특성상 내륙국으로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해안가 거주 인구 요소에 대한 평가가 없는 반면 메콩강이 국가의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어 메콩강 범람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 부문이 높은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nd Myanmar,' p.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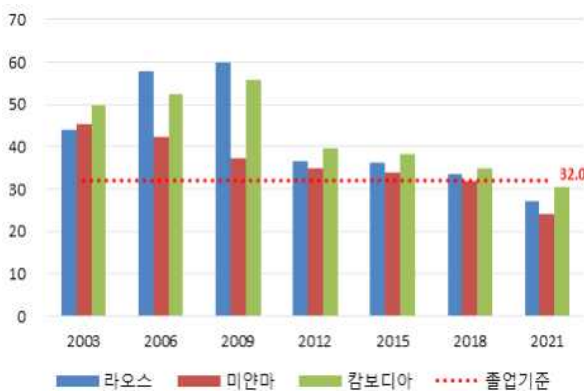
15)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 'Myanmar,' <https://climateknowledgeportal.worldbank.org/country/myanmar/vulnerability>(검색일: 2023. 3. 2).

16) UNESCAP(2021), 'Structural transformation, LDC graduation and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 policy options for Cambodi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nd Myanmar,' p. 27.

것이 특징임.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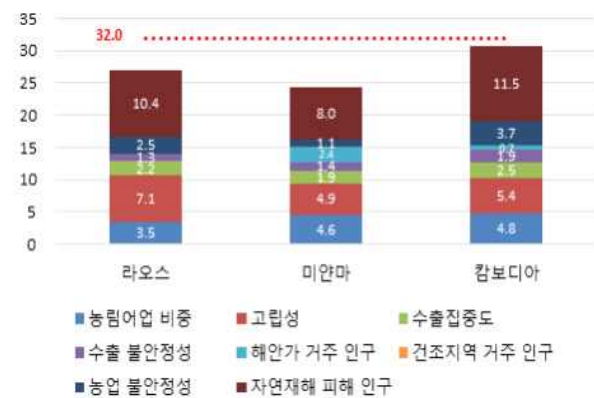
- [경제] 라오스는 대부분 광물 제품과 전력을 주변국에 수출해 무역관세특혜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음.
- 캄보디아는 2021년 검토 기준 동남아 3개국 중 EVI 부문이 가장 부진하며, 특히 자연재해 피해인구, 농림어업 비중, 농업 불안정성, 수출 불안정성 요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환경] 캄보디아는 메콩강 하류 지역에 위치해 홍수 및 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가 높은 편이며,¹⁸⁾ 이러한 자연재해,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농업 부문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등이 낮은 편임.
- [경제] 2020년 결정된 EU의 개도국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 이하 GPS)의 일환인 Everything But Arms(EBA) 제도에서 캄보디아를 인권 및 노동권 규정 미준수 등에 따라 일부 관세 특혜(대부분 의류 섬유산업 분야)를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국가 주요 산업인 의류 및 섬유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¹⁹⁾

그림 6. 동남아 3개국 EVI 지수 추이(2003~21)



주: UN CDP 검토 주기에 따라 3년 주기로 표기함
자료: UN LDC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7. 동남아 3개국 EVI 세부 항목 비중(2021)



주: 각 세부 항목의 총합이 32.0 이하일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함
요소별 면적이 좁을수록 우수한 상태이며, 면적이 넓을수록 부진한 상태임
자료: UN LDC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

4) 최저개발국의 주요 정책

■ 최저개발국 졸업 기준에 일찍이 도달한 라오스와 미얀마는 최저개발국 졸업 및 졸업 후의 경제 전환 등을 국가 우선순위에 두고 경제 및 사회 정책을 시행해옴.

- [라오스] 라오스는 경제 다변화를 통한 최저개발국 졸업 목표하에 국가 장기 개발 계획과 이행전략을 시행하고 있음.²⁰⁾
 - 국가 비전을 표명한 ‘비전 2030(Vision 2030)’과 이행전략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2016-2025(10 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16-2025)’ 등을 통해 △산업화 및 현대화된 경제 구조 확립 △인

17)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 ‘Lao PDR,’ <https://climateknowledgeportal.worldbank.org/country/lao-pdr/vulnerability>(검색일: 2023. 3. 2).

18)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 ‘Cambodia,’ <https://climateknowledgeportal.worldbank.org/country/cambodia/vulnerability>(검색일: 2023. 3. 2).

19) UNESCAP(2021), ‘Structural transformation, LDC graduation and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 policy options for Cambodi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nd Myanmar,’ p. 22.

20) Lao PDR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21-20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4. 19).

적 개발 △천연자원의 효율적 활용 △거버넌스 개선 △역내 및 국제사회 참여 등을 강조함.

- 또한, 제9차 5개년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SEDP: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등을 통해 중·상위소득 국가 지위 달성을 위한 경제 산업화 및 현대화와 디지털,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점을 둠.
- [미얀마] 최저개발국 지위 졸업 및 졸업 이후에 따른 경제 전환 준비를 위해 무역, 투자, ODA 등에 대한 경제 전반에 걸쳐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해옴.
 - 2015년 총선 이후 수립된 미얀마 정부는 부통령 직속 LDCs 졸업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 부문 환경 개선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개선 △인적자원개발 △국영기업 민영화 △안정적인 조세 관리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혁신안을 발표함.²¹⁾
 - 이후 2018년 ‘2018-2030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개발계획(MSDP: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SDGs 달성에 동참하고자 ①평화, 국가 재건, 안보 및 거버넌스 ②경제적 안정 및 거시 경제 강화 ③고용 창출과 민간 주도 성장 ④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 발전 ⑤국가 번영을 위한 천연자원 및 환경을 강조함.²²⁾
 - 또한, 2021년 군정권 수립 이후 ‘미얀마 경제회복계획(MERP: Myanmar Economic Recovery Plan)’을 바탕으로 △농림수산업 및 관광 분야 활성화 △세제 및 규제개혁 △공공 부문 디지털화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 △금융 및 환율 안정 △에너지 및 기후변화 등을 강조함.
- [캄보디아] 2030년까지 상위중소득국(Upper-Middle Income Countries), 2050년까지 고소득국(High Income Countries) 진입을 목표로 최상위 국가개발전략인 ‘사각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 9월 제4기 사각 전략을 이행 중임.²³⁾
 - 제4기 사각 전략은 △인적자원 개발 △경제 다각화 △민간 부문 및 고용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①인적자원 ②도로 ③전력 ④수자원을 우선 지원 분야로 선정함.

나. 남아시아

■ 2021년 검토 기준 남아시아 최저개발국인 방글라데시와 네팔은 대부분의 기준을 달성하였으며, 2026년 최저개발국 지위를 졸업할 수 있는 대상국으로 선정됨.

-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방글라데시와 네팔은 모두 중저소득국으로²⁴⁾ 분류되고 있으나, 1인당 GNI 1,222달러 초과 기준은 방글라데시만 충족함.
- [인간자산지수(HAI)] 방글라데시(75.3), 네팔(74.9) 모두 66 이상으로, 양국은 2018년 이후 꾸준히 기준요건을 달성함.
- [경제·환경취약지수(EVI)] 방글라데시(27.2), 네팔(24.7) 모두 32 이하로, 양국은 2015년 이후 꾸준히 기준요건을 달성함.

21) 장준영(2017), 「미얀마 2016: 새로운 시대의 시작, 불안한 미래」, pp. 198~202.

22)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2018),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2018-2030)’, pp. 1~4.

2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Cambodia, ‘Rectangular Strateg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4. 19).

24) 세계은행(기준에 따르면, 1인당 소득이 1,025 USD 이상인 경우, 중저소득국으로(Lower Middle-Income Countries) 분류됨.

표 5. 남아시아 2개국 최저개발국 경제·사회적 지수 달성 현황(2021년 검토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인간자산지수(HAI)		경제취약지수(EVI)	
국가명	달러	국가명	지수	국가명	지수
1,222달러 초과		66 이상		32 이하	
방글라데시	1,827	방글라데시	75.3	방글라데시	27.2
네팔	1,027	네팔	74.9	네팔	24.7

자료: United Nations(2021). 'Handbook on the LDC Category,' p. 86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검색일: 2023. 2. 14).

1) 1인당 국민총소득(GNI)

■ 남아시아 최저개발국 중에서 방글라데시만 2018년 이후로 LDCs 졸업 기준을 달성했으며, 방글라데시는 섬유산업 네팔은 해외 송금이 경제 및 소득 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방글라데시의 1인당 GNI는 2003년 검토 당시 400달러 미만에서, 2021년 검토 당시 1,800달러 이상으로 약 4.5배 이상 성장했으며 섬유산업이 주요 경제성장 동력임.
 - 섬유산업은 방글라데시 전체 GDP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및 수입의 84% 이상이 섬유 및 관련 제품으로 구성됨.²⁵⁾
 - 인건비가 낮은 최저개발국²⁶⁾은 2020년 기준 세계 의류 수출에서 약 15.2%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방글라데시는 약 60% 이상²⁷⁾을 차지하고 있음.²⁸⁾
- 네팔 1인당 GNI는 2003년 검토 당시 250달러 미만이었으나, 2021년 검토 기준 1,000달러 이상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하회함.
 - 네팔 경제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송금액은 네팔 1인당 GNI 증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나, 환율 변동 및 인플레이션과 같은 국제적 영향력에 취약한 경제 구조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함.²⁹⁾³⁰⁾
 - 또한 주요 산업인 농업의 경우, 네팔 인구의 3분의 2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산간 지형 △높은 자연재해 빈도 △현대식 농업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해 경제적 생산성이 낮은 편임.³¹⁾³²⁾

■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4~8%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악화됐으며, 특히 네팔의 경우 2016년 자연재해로 인해 성장률이 급락함.

- 최저개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와 이동 제한,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해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됐으며,³³⁾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방글라데시와 관광 산업 비중이 높은 네팔의 경제성장률 역시 감소함.³⁴⁾

25) Bangladesh Textile Mills Association 웹사이트, 'CONTRIBUTION OF TEXTILES,' <https://btmadhaka.com/>(검색일: 2023. 3. 27).

26) 방글라데시,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가 포함됨.

27) 캄보디아(20%), 미얀마(9%).

28) WTO(2022), 'Textiles and clothing in Asian graduating LDCs: Challenges and options,' p. 6.

29) 2008년부터 대부분의 네팔 해외 송금액은 GDP 기준 약 20% 이상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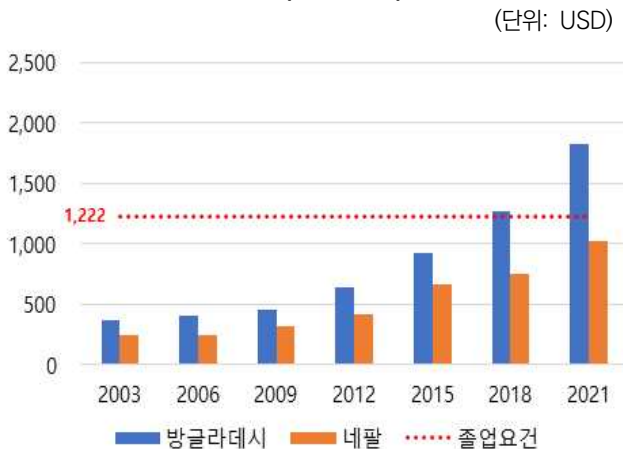
30) World Bank(2021), 'Personal remittances, received(% of GDP) - Nepal'(검색일: 2023. 3. 27).

31) Sawtee(2022), 'Nepal's graduation from the LDC category,' p. 8.

32) World Bank(202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value added(% of GDP) - Nepal'(검색일: 2023. 3.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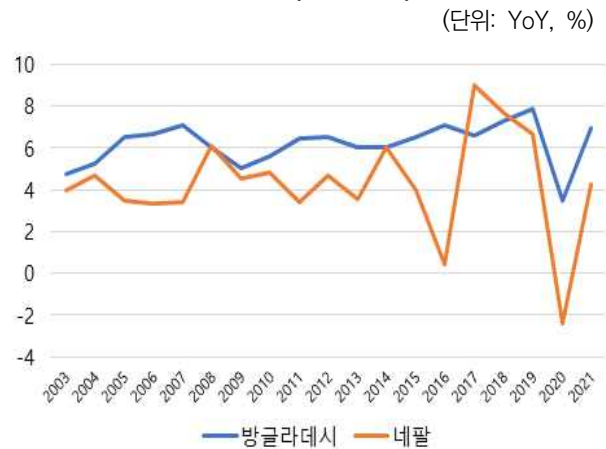
- 방글라데시의 의류 산업은 글로벌 수요 부진 및 발주 중단 등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며, 이는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짐.³⁵⁾
-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네팔에서는 약 160만~200만 명이 실직했으며, 관광 산업 악화³⁶⁾와 더불어 해외 송금의 급감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외화 손실이 네팔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³⁷⁾
- 2015년 네팔 대지진은 약 8,9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14만 채 이상의 가옥 및 기반 시설을 파괴했으며, 더불어 당해 인도의 네팔 무역 봉쇄는 네팔 경제를 더욱더 악화시킴.³⁸⁾

그림 8. 방글라데시, 네팔 1인당 국민총소득(GNI)
추이(2003~21)



주: UN CDP 검토 주기에 따라 3년 주기로 표기함.
자료: UN LDC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9. 방글라데시, 네팔 GDP 성장률
추이(2003~21)



자료: CEIC(검색일: 2023. 02. 14).

2) 인간자산지수(HAI)

■ 남아시아 2개국은 2018년 검토 기준 모두 HAI 기준을 충족했으나, 여전히 기초 교육 부문의 개선과 발육부진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태임.

- 방글라데시는 2003년 45.3에서 2021년 75.3, 네팔은 2003년 47.1에서 2021년 74.9로 양 국가 모두 HAI가 약 1.6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2018년 검토 기준 졸업 자격이 부여됨.
- 양국 모두 교육지표인 중등교육 입학률과 성인 식자율이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나며, 이는 교육 관련 인프라 확충, 교육의 질 개선, 교육 접근성 증진 등이 필요함을 의미함.

33) 이은석, 유애라(2023), '제5차 최저개발국회의(LDC5)의 주요 의제와 정책 시사점,' p. 19(검색일: 2023. 3. 27).

34) Nepal Tourism Board, <https://ntb.gov.np/>(검색일: 2023. 3. 28).

35) The daily Star(2021), 'The impact of COVID-19 on Global FDI and Bangladesh Economy,'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3. 27).

36) 네팔의 경우 2020년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약 80.4% 감소하면서 고용 및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37) Dorosh *et al.* (2023), 'COVID-19 and the economic recovery in South Asia: Economywide modeling scenarios for Bangladesh and Nepal.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p. 4.

38) The Katmandu Post(2021), 'Dip in per capita income challenge to Nepal's graduation to developing country statu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3. 28).

- 양국은 초등교육 체계 개선과 같이 기초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 빈곤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³⁹⁾
- 한편 건강지표 중 유일하게 발육부진율이 최저점을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남아시아 지역 내 아동 건강·보건과 관련된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함.
- 남아시아 지역에서 5세 미만 아동의 38%가 발육부진으로 2019년 기준 방글라데시는 29%, 네팔은 31.5%를 기록했으며, 주요 원인은 △생후 첫 2년 동안의 열악한 식습관 △임신 전후의 여성의 영양 부족 △열악한 위생 환경임.⁴⁰⁾
- 산모의 낮은 교육 수준과 150cm 미만의 저신장은 아동 발육부진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산모의 건강은 모유를 섭취하는 아동의 영양 상태와 직결됨.⁴¹⁾

그림 10. 방글라데시, 네팔 HAI 지수 추이(2003~21)



주: UN CDP 검토 주기에 따라 3년 주기로 표기함.
자료: UN LDC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11. 방글라데시, 네팔 HAI 세부 항목 비중(2021)



주: 5세 이하 아동 사망 지수는 1,000명, 산모 사망 지수는 10만 명당 수치임.
각 세부 항목의 총합이 66 이상일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함.
또한, 요소별 면적이 클수록 우수한 상태이며, 면적이 좁을수록 부진한 상태임.
자료: UN LDC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경제·환경 취약성 지수(EVI)

■ 2015년 이후 방글라데시와 네팔 모두 꾸준히 EVI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두 국가 모두 △자연재해 피해인구 △고립성 △건조지역 거주 인구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양 국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취약성 대응과 국제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자연재해 취약성이 높은 국가 순위로 182개국 중 방글라데시는 7위, 네팔은 9위를 차지함.⁴²⁾
-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높은 고립성에 대한 주요 원인은 △지정학적 측면 △인프라 부족과 국제 수송로에 대한 낮

39) The daily star(2022), 'What Bangladesh needs to accomplish to be an upper-middle income country,'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3. 28).

40) UNICEF, Stop stunting in South Asia - Part,

41) "Factors Associated with Stunting among Children under 5 Years in Five South Asian Countries(2014-2018): Analysis of Demographic Health Surveys,"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7767090/>.

42) Notre Dame Global Adaptation Initiative(2021),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dex,'(검색일: 2023. 3. 29).

은 접근성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등임.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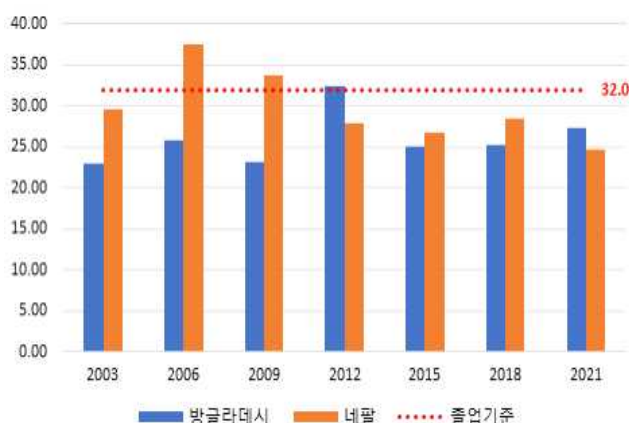
- 대표적인 기후 취약국인 방글라데시에서 물과 관련된 환경 문제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짐.

- [경제] 방글라데시는 심각한 홍수가 발생 시 GDP가 최대 9%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큰 상황임.⁴⁴⁾
- [환경] 급속한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수질 오염 △물 부족과 관련한 심각한 환경 문제는 방글라데시의 공중 보건 및 위생 문제와 직결됨.⁴⁵⁾
- [환경] 방글라데시는 2012년 검토 기준 EVI 지수가 급증했으며, 이는 2009년 사이클론(Aila)과 2010년 기록적인 홍수, 2011년 6.9 진도 지진(Sikkim)과 같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⁴⁶⁾

-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네팔은 주요 산업인 농업 분야에서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이며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량 증가를 위한 농지 확보가 환경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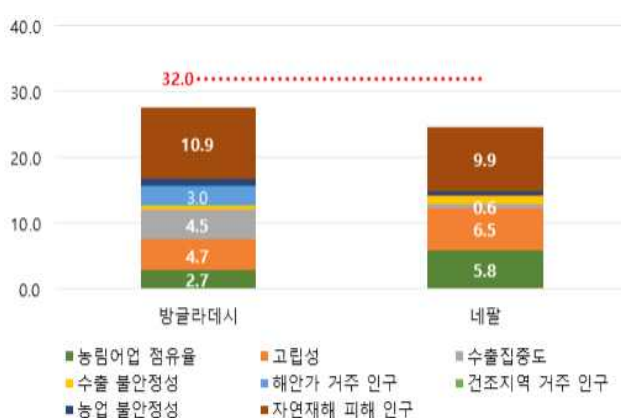
- [경제] 네팔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노동 생산성 감소, 농작물 및 가축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해 연간 GDP의 1.5%~2%에 해당하는 경제적 비용을 손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⁴⁷⁾
- [환경] 자연재해에 취약한 네팔은 2006년 환경취약지수 반영 후 네팔의 EVI 점수가 급증함.⁴⁸⁾
- [환경] 히말라야에 위치한 네팔은 기상 상황에 따른 농업 불안정성이 높으며, 현재 농지 확장을 위한 삼림 벌채로 인해 매년 △토양 침식 △생물 다양성 손실 △물 가용성 감소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⁴⁹⁾

그림 12. 방글라데시, 네팔 EVI 지수 추이(2003~21)



주: UN CDP 검토 주기에 따라 3년 주기로 표기함.
자료: UN LDC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13. 방글라데시, 네팔 EVI 세부 항목 비중(2021)



주: 각 세부 항목의 총합이 32 이하일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함.
요소별 면적이 좁을수록 우수한 상태이며, 면적이 넓을수록 부진한 상태임.
자료: UN LDC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

43) World Bank(2007), 'Landlockedness, Infrastructure and Trade: New Estimates for Central Asian Countries'(검색일: 2023. 3. 29).

44) World Bank(2022), 'Key Highlights: Country Climate and Development Report for Bangladesh'(검색일: 2023. 3. 29).

45) Hasan *et al.*(2019), 'Water pollution in Bangladesh and its impact on public health,' p. 5.

46) Rediff(2011), 'PIX: 3,000 people rescued in Sikkim,'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3. 28).

47) World Bank(2022), 'Key Highlights: Country Climate and Development Report for Nepal'(검색일: 2023. 3. 29).

48) 네팔은 빙하 호수 폭발(GLOFS: Glacial Lake Outburst Floods), 산사태, 가뭄 및 수인성 질병을 포함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위험이 큼.

49) Chaudhary *et al.*(2016), 'Deforestation in Nepal: Causes, consequences and responses.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hazards, risks, and disasters,' p. 360.

4) 최저개발국의 주요 정책

■ LDC 졸업 및 SDGs 달성을 목표로 방글라데시는 ‘비전 2041(Vision 2041)’, 네팔은 ‘비전 2043(Vision 2043)’과 같은 국가 개발계획 정책을 수립함.

- 방글라데시의 국가 경제 위원회는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위해 ‘비전 2041’을 발표하고, 일환으로 ‘스마트 방글라데시 구축(Smart Bangladesh)’ 정책을 제시함.⁵⁰⁾
 - 비전 2041의 일환인 방글라데시 ‘제8차 5개년 계획(2020-2025)’은 △GDP 성장 가속화 △재난 및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지속가능개발 △도시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 LDC5에서 방글라데시는 국제 공급망 부문에서 지역 거점국이 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방글라데시’ 정책을 강조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함.
- 네팔의 국가 계획 위원회는 2030년까지 중위소득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 2043(Vision 2043)’을 발표함.⁵¹⁾
 - 비전 2043은 단기적으로는 빈곤 퇴치 및 산업 구조 변화를 포함한 경제적 ‘변영’과 장기적으로는 사회 정책과 관련한 ‘행복’을 구분해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비전 2043의 첫 번째 계획인 ‘제15차 네팔 국가개발계획(2019-2024)’에서는 △수력발전 △관광 산업 장려 △농업 및 인적 자본 형성과 같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와 네팔은 다양한 교육 계획 및 보건 정책을 바탕으로 HAI 세부 항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행 중임.

- 방글라데시는 식자율과 교육 효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부문 계획’과 발육부진 해결을 목표로 하는 ‘국가 영양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 교육 부문 계획⁵²⁾에 따르면 식자율과 교육 효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교육의 질 향상 △여아 교육 확대 △커뮤니티 참여 증대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2011년에 시작된 국가 영양 서비스 프로그램⁵³⁾은 발육부진과 영양실조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및 수유 중인 여성과 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며, 이후 방글라데시 정부는 영양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⁵⁴⁾ 및 방글라데시 통합 영양 프로젝트⁵⁵⁾를 시행함.⁵⁶⁾
- 네팔은 ‘교육의 질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본 초등교육 프로그램’,⁵⁷⁾ 모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⁵⁸⁾과 ‘발육부진 해결을 위한 다중 부문 영양 계획’을 시행함.⁵⁹⁾
 - 네팔은 1992년 ‘기본 초등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네팔의 학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1999년 시행된 ‘기본 초등교육 프로그램Ⅱ’는 마오이스트 반군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2004년 ‘기본 초등교육

50) Bangladesh Planning Commission(2020), ‘8TH Five Year Plan,’(검색일: 2023. 4. 3).

51) OECD(2014), ‘Assessment of Implementation of the Istanbu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LDCs for the Decade 2011-2020,’(검색일: 2023. 4. 3).

52) Educational Sector Plan(ESP)

53) National Nutrition Services(NNS)

54) National Plan of Action for Nutrition(NPAN)

55) Bangladesh Integrated Nutrition Project(BINP)

56) UNICEF(2016), ‘Operational Plan For “NATIONAL NUTRITION SERVICES,”(검색일: 2023. 4. 3).

57) Basic and Primary Education Project(BPEP).

58) Education for All(EFA).

59) The Multi-Sector Nutrition Plan(MSNP).

프로그램Ⅱ가 종료될 무렵 △초등학교 수 39% 증가 △초등학교 등록 학생 수 38% 증가라는 성과를 달성함.

- 2004년 네팔은 교육 접근성, 형평성 및 질을 높이기 위한 모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⁶⁰⁾ 시작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초등학교 관리 시스템 개선 및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함.
- 아동 발육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중 부문 영향 계획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 개선 △완전한 모유 수유 촉진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 개선 △영양가 있는 음식의 가용성 개선 등에 집중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와 네팔은 기후 및 환경 취약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녹색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 델타 플랜 2100’, ‘무지브 기후 번영 계획(Mujib Climate Prosperity Plan)’을 바탕으로 기후 및 환경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 ‘방글라데시 델타 플랜 2100’은 방글라데시 델타 지역의 홍수, 가뭄, 기후변화, 하천 침식, 사이클론과 같은 기후 위기에 대응 방안을 구축함으로써, 물안보, 수자원 관리,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프로젝트로 구성됨.⁶¹⁾
 - 무지브 기후 번영 계획은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금 구축 △에너지 저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 △친환경 운송 △농업 및 어업 분야의 기후 탄력성 증진 등을 포함하고 있음.⁶²⁾
- 네팔은 ‘녹색, 회복력 및 포용적 개발’을⁶³⁾ 바탕으로 장기적인 녹색 성장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⁶⁴⁾ 발전시켜나가고 있음.⁶⁵⁾
 - 네팔은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수력발전 투자를 확대해 에너지 전환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다. 아프리카

■ 2021년 검토 기준을 바탕으로 세네갈은 한국의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중 최초로 1인당 GNI, HAI 지수를 달성해 졸업요건을 충족한 반면, 대부분 국가가 경제·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임.

- [1인당 국민총소득(GNI)] 세네갈은 1인당 GNI가 1,370달러를 기록하였고, 다음으로는 탄자니아 1,031달러, 그 외 국가는 1,000달러 미만임.
- [인간자산지수(HAI)] HAI의 경우, 르완다의 달성 정도가 가장 높은 편으로 67.6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는 세네갈 66.4이며, 그 외 국가는 66을 하회함.
- [경제·환경취약지수(EVI)] EVI의 경우, 우간다가 29.1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순위를 달성했으며, 그다음으로는 르완다 32.3으로 졸업요건 기준에 근접한 가운데 세네갈이 43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60) 취약 계층 아동의 교육 환경 개선, 여아의 초등 교육 참여 확대, 성인 여성의 문해 수준 향상, 교육의 성 평등 달성 등을 위한 유네스코 주도의 세계 교육 운동

61) 외교부(2021), ‘방글라데시 델타 플랜 2100(Bangladesh Delta Plan 2100)’(검색일: 2023. 4. 4).

62) ‘Mujib Climate Prosperity Plan,’ <https://mujibplan.com/>(검색일: 2023. 4. 4).

63) Green, Resilient, and Inclusive Development(GRID).

64) 2019년 국가 기후변화 정책, 2022년 고형 폐기물 관리 정책, 2022년 산림 규제 및 토지 사용 규제 등이 포함됨.

65) World Bank(2022), ‘Key Highlights: Country Climate and Development Report for Nepal,’(검색일: 2023. 3. 29).

표 6. 아프리카 5개국 최저개발국 경제·사회적 지수 달성 현황(2021년 검토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인간자산지수(HAI)		경제·환경 취약성 지수(EVI)	
국가명	달러	국가명	지수	국가명	지수
1,222달러 초과		66 이상		32 이하	
우간다	670	에티오피아	55.3	세네갈	43.0
르완다	784	우간다	57.8	탄자니아	34.7
에티오피아	832	탄자니아	61.1	에티오피아	34.3
탄자니아	1,031	세네갈	66.4	르완다	32.3
세네갈	1,370	르완다	67.6	우간다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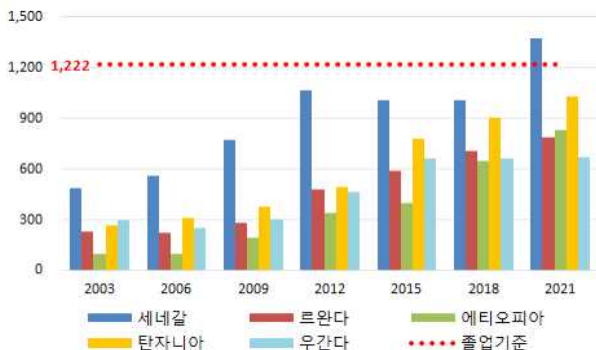
자료: United Nations(2021), 'Handbook on the LDC Category,' p. 86 자료 바탕으로 저자 정리(검색일: 2023. 2. 14).

1)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아프리카 최저개발국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1인당 GNI를 점차 증대시켜가고 있으나, 2021년 검토 기준 경제·사회적 요건을 충족한 국가는 세네갈이 유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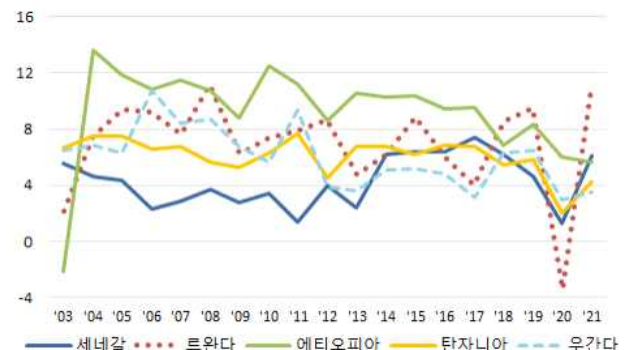
- [세네갈] 2003년 이후 1인당 GNI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2~18년 사이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으나, 2021년 검토 시 1,370달러를 기록하면서 1인당 GNI 기준요건을 1회 충족함.
- [에티오피아] 1억이 넘는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5개국 중 1인당 GNI가 가장 급격하게 성장 중인 국가이며, 2003년 검토 당시 100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GNI는 18년간 8배 이상 증가하여 2021년 832달러를 기록함.
- [르완다] 경제 규모가 작고 인구도 적은 소규모 내륙국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기반으로 빠르게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검토 시 230달러였던 1인당 GNI는 2021년 검토 시 784달러까지 증가함.
- [탄자니아] 1인당 GNI가 18년간 4배가량 증가했으며, 2003년 검토 시 263달러였던 1인당 GNI는 2021년 검토 시 1,031달러까지 증가함.
- [우간다] 5개국 중 1인당 GNI 증가 속도가 가장 느리며, 2003년 검토 당시에는 5개국 중 세네갈 다음으로 1인당 GNI가 높았으나, 2021년 검토 시에는 5개국 중 가장 낮은 1인당 GNI를 기록함.

그림 14. 아프리카 5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 추이(2003~21)
(단위: USD)



주: UN CDP 검토 주기에 따라 3년 주기로 표기함.
자료: UN LDC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15. 아프리카 5개국
경제성장률 추이(2003~21)
(단위: YoY, %)



자료: World Bank(검색일: 2023. 2. 20).

■ 아프리카 최저개발국 중 한국의 5개 중점협력국은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고성장 국가들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연평균 6~10%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세네갈] 아프리카 국가 중 경제 구조가 다변화된 편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특히 높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음.
 - 서비스업 부문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서비스업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41%였으나, 최근 20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1년 57%를 기록함.
 - 세네갈 해상에서 천연가스전이 발견되어 2023년 생산을 앞두고 있으며, 천연가스 수출이 본격화되면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2위의 인구 대국으로, 2004년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적은 편이었으나, 2021년 발발한 티그라이 분쟁의 여파로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임.
 - 2003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작황이 감소함에 따라 경기가 크게 위축되었다가 2004년 성장률이 13.6%까지 상승했으며, 2004~19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3%에 달함.
 -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삭감하여 대규모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고, 민간 부문 금융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경제 구조 면에서는 점차 농업의 기여도가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 중이나, 아직 고용 측면에서는 농업 종사자 비중이 높음.⁶⁶⁾
- [르완다] 2003~19년간 연평균 성장률 7.4%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자체 산업 기반이 부족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2020년 경제성장률이 -3.4%까지 하락하였음.
 - 농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르완다의 주요 수출품은 커피와 차 등 농산품이나, 천수답 농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취약한 편이며, 최근 광물 수출도 증가 중임.⁶⁷⁾
- [탄자니아] 아프리카 5위의 인구 대국이며, 금, 천연가스 등 자원도 풍부하여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경제가 고도화되지 못하였고 제조업은 농가공업 위주임.⁶⁸⁾
 - 세렝게티 등을 기반으로 한 관광업이 주요 산업 중 하나이며, 최근 도·소매업, 통신업 등이 성장 중임.
- [우간다] 광물자원과 비옥한 농토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2003~11년까지 6~1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경제 구조상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크며, 특히 도·소매업 및 ICT 분야 규모가 크고, 공업 부문에서는 최근 정부가 석유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면서 건설업이 성장 중이며, 2023년 원유 생산을 시작함.⁶⁹⁾
 - 고용 면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이 높으며, 주요 수출품 역시 커피, 차, 담배 등 농산품임.⁷⁰⁾

2) 인간자산지수(HAI)

■ 전반적으로 HAI가 상승 중이며, 공통적으로 중등교육 관련 성평등 지수와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은 양호한 편이나,

66) World Bank Group(2015), *Ethiopia's great run: the growth acceleration and how to pace it*, pp. 24-25, pp. 41-43.

67) Oxford Economics(2023c), "Country Economic Forecast Rwanda," p. 6.

68) Oxford Economics(2023b), "Country Economic Forecast Tanzania," p.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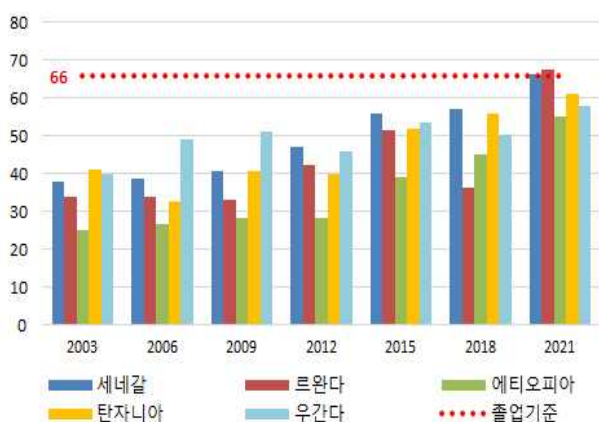
69) Oxford Economics(2023a), "Country Economic Forecast Uganda," p. 6.

70) *Ibid.*, p. 6.

중학교 등록률이 낮아 HAI 졸업요건 달성이 지연되고 있음.

- [세네갈] 2021년 HAI 기준(66 이상)을 상회하는 66.4를 기록하였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아동 발육부진 지수가 양호한 점은 긍정적이나, 성인 문해 지수가 낮은 점은 개선이 필요함.
 - o 3개 지표 중 2개 지표의(1인당 GNI와 HAI) 졸업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5개국 중 최초로 최저개발국 졸업요건을 1회 충족하게 됨.
- [르완다] 2003년 34.1에 불과했던 HAI가 2021년에는 67.6까지 상승하였으며, 특히 중등교육 관련 성평등 지수, 산모사망 지수, 5세 이하 아동 사망 지수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임.⁷¹⁾
- [에티오피아] 2015년부터 HAI가 지속 상승하는 중이기는 하나, 5개국 중 HAI가 가장 낮으며, 성인 문해 지수와 중학교 등록 지수, 발육부진 지수 부문이 특히 부진함.
- [탄자니아, 우간다] 성인 문해 지수가 높은 반면 중학교 등록 지수가 매우 낮은 상황이며, 우간다의 경우는 2015년 이후 HAI 지수가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된 모습을 보임.

그림 16. 아프리카 5개국 HAI 지수 추이(2003~21)



주: UN CDP 검토 주기에 따라 3년 주기로 표기함.
자료: UN LDC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17. 아프리카 5개국 HAI 세부 항목 비중(2021)



주: 5세 이하 아동 사망 지수는 1,000명, 산모 사망 지수는 10만 명당 수치임.
각 세부 항목의 총합이 66 이상일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함.
또한, 요소별 면적이 클수록 우수한 상태이며, 면적이 좁을수록 부진한 상태임.
자료: UN LDC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경제·환경 취약성 지수(E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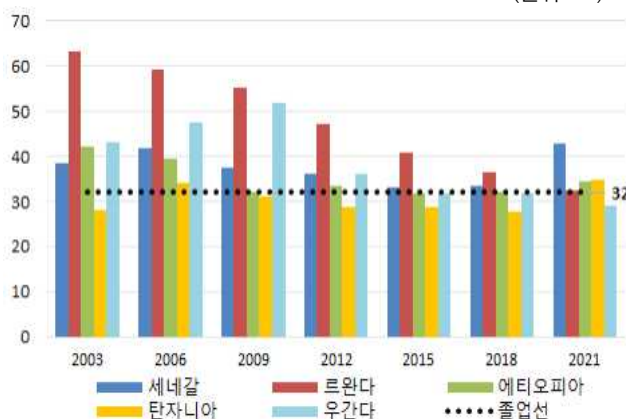
■ 아프리카 최저개발국 대부분은 EVI가 졸업 기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개선되었으나, 다수 국가가 자연재해 피해인구, 농림어업 비중 및 고립성 측면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세네갈] 2015, 2018년에는 EVI 기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2021년 EVI 지표에 '건조지역 거주 인구 비중' 항목이 추가되면서 지수가 42.9까지 급등함.

71) 2021년 HAI 졸업기준을 충족했으나, 다른 지표들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여 최저개발국 지위 졸업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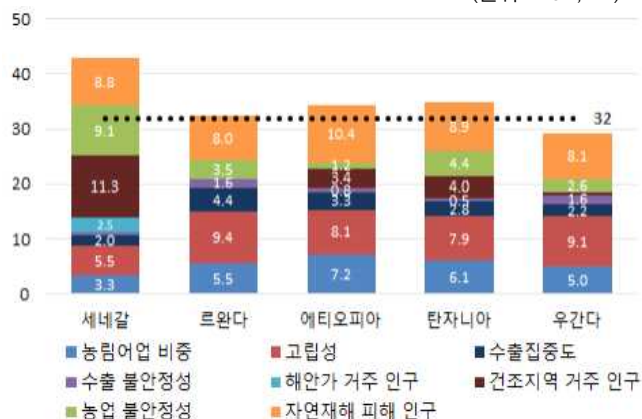
- 세네갈은 사하라사막에 인접하고 있어 국토의 상당 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에 건조지역 인구가 많음.
- 그 외 부문 중에서는 수출불안정성, 농업불안정성, 자연재해 피해인구 측면에서 취약함.
- [르완다] 5개국 중 EVI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국가로, 2003년에는 63.3에 달했던 EVI가 2021년에는 32.3까지 하락하였으며, 특히 수출불안정성 부문을 대폭 개선함.
- [에티오피아] 2009년부터 EVI 기준에 근접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EVI가 31.8을 기록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도 하였음.
- 2017~19년 평균 기준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8%로, 경제 규모에 비해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제조업 및 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경제를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음.⁷²⁾
- [탄자니아] EVI가 양호한 편으로, 2006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모든 검토 연도에 EVI 졸업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경제구조 및 경제 상황에 큰 변동이 없는 만큼 EVI도 연도별 변동 폭이 크지 않음.
- 그러나 1인당 GNI 및 HAI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어 졸업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함.
- [우간다] 2012년까지는 EVI 달성도가 낮았으나, 2015년부터 EVI 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피해인구와 고립성 측면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는 내륙국이기 때문에 고립성 지수는 계속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EVI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그림 18. 아프리카 5개국 EVI 지수 추이(2003~21)
(단위: %)



주: UN CDP 검토 주기에 따라 3년 주기로 표기함.
자료: UN LDC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19. 아프리카 5개국 EVI 세부 항목 비중(2021)
(단위: YoY, %)



주: 각 세부 항목의 총합이 32 이하일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함.
요소별 면적이 좁을수록 우수한 상태이며, 면적이 넓을수록 부진한 상태임.
자료: UN LDC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

4) 최저개발국의 주요 정책

■ 아프리카 최저개발국들은 국가발전 전략에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및 복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표방하며, 여러

72) 농림어업 비중 수치는 UN LDC data의 2021년 검토 시 수치를 인용함.

국가가 중소득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중장기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 [세네갈] 정부는 「제2차 세네갈 부상전략(Plan Sénégal Émergent)」을 기반으로 국가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경제를 발전시켜 중소득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경제구조 변화 및 경제성장 △지속가능발전, 인적자원 개발 △거버넌스 개선 등을 중점분야로 두고 있으며, 제1차 PSE에 비해 수출 다변화, 수입 의존도 감소, 중소기업 지원 등을 강조함.⁷³⁾
 - 2019~23년간 연평균 9.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요원해짐.
- [르완다] 2035년 중소득국에 진입하고 2050년까지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전 2050(Vision 2050)」 전략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⁷⁴⁾
 - 1인당 GDP의 경우 2035년까지 4,036달러, 2050년까지 12,476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비전 2050을 추진하기 위한 중기 전략인 「국가변혁전략(National Strategy for Transformation)」은 경제, 사회, 거버넌스의 전환을 위해 △지식기반 경제 확립 △산업화 촉진 △빈곤 퇴치 △공공기관 역량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함.⁷⁵⁾
- [에티오피아] 정부는 「10개년 개발계획 (Ten Years Development Plan)」을 통해 국민소득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 아프리카에서 번영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고자 함.
 - 6대 개발 목표로 △시장 기반 경제체제 구축 및 민간 부문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및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 △양질의 기초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정부 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개선 △제도 및 법치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⁷⁶⁾
 - 2019/20 회계연도 기준 GDP 대비 32.6%인 농업의 비중을 2029/30 회계연도까지 22%로 축소하고, 공업의 비중은 29%에서 35.9%로 확대(제조업 비중은 6.9%에서 17.2%까지 확대)하고자 함.
- [탄자니아] 2025년까지 중소득국으로 도약하고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수준을 높이기 위해 「탄자니아 개발 비전 2025(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을 1999년부터 추진해옴.⁷⁷⁾
 - 2025년 최저개발국 지위 졸업이 목표였으나, 2021년까지 한 번도 졸업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고, 전반적으로 1인당 GNI, HAI, EVI 달성도가 낮아 실질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움.
 - 중기 전략인 「제3차 5개년 개발계획(Five Years Development Plan III)」은 △산업화 진전 및 수출 기반 성장 추진 △과학·기술 분야 역량 강화 △민간 부문 및 스타트업 성장 지원 △관광 산업 및 금융업 발전 △포용적 경제성장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⁷⁸⁾
- [우간다] 장기 국가개발전략인 「우간다 비전 2040(Uganda Vision 2040)」에서는 2040년까지 1인당 GNI 9,500달러를 달성하여 중소득국에 합류하고자 함.⁷⁹⁾
 - 비전 2040 실현을 위한 중기 전략인 「제3차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III)」에서는 △주요 분

73) République du Sénégal(2018), *Plan Sénégal Émergent - Plan d'Actions Prioritaires 2019-2023*.

74)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2015), *Vision 2050*.

75) The Republic of Rwanda(2017), *7 Years Government Programme: National Strategy for Transformation (NST 1) 2017-2024*.

76)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2021), *Ten Years Development Plan: A Pathway to Prosperity*.

77) Planning Commission(1999), *The 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

78)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2021), *National Five Year Development Plan 2021/22-2025/26, FYDP III*.

79) National Planning Authority(2013), *Uganda Vision 2040*.

야에서의 부가가치 증대 △민간 분야 발전 및 고용 창출 △생산 인프라 개선 △생산성 향상 및 복지 증진 △발전 과정에서 국가 역할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및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함.⁸⁰⁾

- 경제 발전을 위해 특히 농업, 관광업, 광업, 석유산업, 제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⁸¹⁾

4. 한국의 대중점협력국 협력 방안

가. 지역별 중점협력 방안

■ [동남아] 한국의 중점협력국 중 동남아 최저개발국은 공통으로 △물관리 및 보건 △지역개발 △교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등교육 지원, 수출 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연재해 피해인구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2005년부터 한국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속 선정되었으며, 특히 △물관리 및 보건 △지역개발 △에너지 △교통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왔음.
- 미얀마는 2010년 한국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이후 △교통 △지역개발 △에너지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 인프라(발전 및 송배전 시설) 확충이 중점 사업임.⁸²⁾
- 다만, 한국의 동남아 3개국에 지원하는 교육의 경우, 직업교육 및 전문기술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동남아 3국에 나타나는 다소 저조한 중학교 등록률 지원을 위한 강구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남아 3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립성 문제와 자연재해 피해인구 등을 위한 적극적인 내륙 및 수륙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기후변화 적응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피해인구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남아시아]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취약한 HAI와 EVI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 △보건 △기후변화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현재 우리 정부의 방글라데시 중점 협력 분야는 △교육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등이며, 특히 방글라데시의 ‘델타 2100’을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한 수자원 분야의 협력을 진행 중임.⁸³⁾
 - 코이카는 방글라데시에 물공급·처리 시설 확충을 통해 깨끗한 식수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초·중등 교육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네팔과의 중점 협력 분야는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지역개발 △에너지 등이며, 네팔의 지형을 활용한 수력 발전과 농업 생산성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⁸⁴⁾

80) National Plannig Authority(2020), *Third National Development Plan (NDP III) 2020/2021-2024/25*.

81) Oxford Economics(2023. 2. 28), “Country Economic Forecast Uganda,” p. 6.

82) 「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 관계부처 합동(2022).

83) 「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 관계부처 합동(2022).

- 네팔은 산악 지대를 활용한 수자원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전력 부족 문제 및 수자원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수자원 인프라 협력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성과 계절별 편차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남아시아 국가들의 자생적인 인적 자원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 발육부진 및 영양 상태와 관련한 보건 협력이 필요함.
-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발육부진율은 평균 30%로, 신체 발육과 지능 발달에 직접적인 발육부진 문제와 영양실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기후변화 취약국인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특성을 고려한 협력 전략을 구축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자연재해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기후변화는 방글라데시에서 범람 및 전염병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네팔에서는 가뭄과 홍수가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최저개발국들을 대상으로 △교육 △지역개발 △보건 △교통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 및 보건 분야 지원이 최근 크게 증가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에 따르면, 교육과 지역개발(농업) 분야의 경우 아프리카 5개 최저개발국 모두에서 중점 분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건은 4개국, 교통은 3개국에서 중점분야로 선정되었음.⁸⁵⁾
- 2006~21년 누계 기준 최대 지원 분야는 교통으로 총 4억 3,14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어서 보건(3억 6,610만 달러), 교육(2억 8,290만 달러), 농림수산업(2억 950만 달러)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였음.
 - 교통 부문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국가는 탄자니아로, 교량 및 도로 건설 사업을 지원했으며, 세네갈의 경우 해상인프라 구축 및 개선, 에티오피아의 경우 도로 건설 및 보수를 지원함.
 - 보건 분야의 경우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에 집중적으로 지원했으며, 모자보건 사업과 재정 지원을 주로 실시함.
 - 교육 분야의 경우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에 대한 지원이 많기는 하나 국가별 지원액 편차가 적은 편이며, 대학교 ICT 학부, 직업교육 훈련원, 기술고등학교, 초등학교 등을 설립하는 사업이 많았음.

표 7. 한국의 아프리카 5개 최저개발국 분야별 ODA지원 현황(2006~21 누계)

(단위: 백만 달러)

CRS 코드	분야	세네갈	르완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	계
210	교통 및 물류	135.6	0.4	132.8	153.8	8.9	431.4
120	보건	15.6	12.4	121.6	177.8	38.7	366.1
110	교육	33.9	65.8	69.9	63.0	50.2	282.9
310	농림수산업	39.9	32.5	50.8	58.2	28.2	209.5
230	에너지	5.1	0.3	81.1	82.0	0.8	169.4
	기타	61.7	83.4	174.2	169.9	92.3	117.2

주: 2020년 고정가격 기준 유·무상 ODA 총 집행액임.

자료: OECD CRS DB(검색일: 2023. 4. 25).

84) 「네팔 국가협력전략」; 관계부처 합동(2022).

85) 관계부처 합동(2022a), 「르완다 국가협력전략」; 관계부처 합동(2022b), 「세네갈 국가협력전략」; 관계부처 합동(2023a), 「에티오피아 국가협력전략」; 관계부처 합동(2023b), 「우간다 국가협력전략」; 관계부처 합동(2023c), 「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 이하 사업 내용은 코이카 통계조회서비스 내 '국별 세부' 항목을 참고함.

- 한국의 對아프리카 주요 중점지원 분야인 보건 인프라, 직업훈련, 농촌개발은 아프리카 최저개발국의 경제·사회적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5개국 내 자연재해 피해인구 지원, 아동 영양 개선, 중학교 등록률 향상, 성인 대상 문해율 증가 등의 부문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대다수 아프리카 최저개발국에서 자연재해 피해인구가 많은 것이 EVI 개선을 저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자연재해 대응 관련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교통 분야의 경우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세네갈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내륙국으로서 교통상황이 열악한 우간다와 르완다에 대한 교통 부문 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보건 분야에서는 기초 보건 부문의 지원 규모가 크며, 특히 보건 인프라, 전염병 관리, 진료 서비스 부문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최저개발국들이 HAI 구성요소 중 발육부진 측면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영양 관련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산모사망 지수 측면에서 고전하고 있는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모자보건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며, 우간다도 산모사망 지수 개선이 필요하므로 관련 지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 교육 부문에서는 직업훈련과 고등교육 부문 지원 비중이 높는데, 다수 아프리카 최저개발국에서 낮은 중학교 등록률과 낮은 성인 문해율이 HAI 개선을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중등교육 및 성인 대상 비정규 교육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⁸⁶⁾
 - 특히 HAI 달성도가 낮은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를 대상으로 중학교 등록 지수 및 성인 문해력 지수 증가를 위한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업 부문에서는 농업 인프라 및 농촌개발 관련 지원이 많은데, 이는 농촌인구가 많고 농업불안정성이 높은 아프리카 최저개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함.
 - 다만 경제 작물 및 수출 작물(industrial crops and export crops) 관련 지원은 저조한 상황으로, 주요 수출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표 8. 한국의 아프리카 5개 최저개발국 세부 분야별 ODA지원 현황(2006~21 누계)

(단위: 백만 달러)

CRS 분류	CRS 코드	분야	지원액	CRS 분류	CRS 코드	분야	지원액
교통/물류	21020	도로 운송	856.5	보건 일반	12181	의료교육/훈련	111.5
교통/물류	21040	수로 운송	405.3	기초 보건	12220	기초 보건 진료	110.9
중등교육	11330	직업훈련	279.3	기초 교육	11220	초등교육	108.4
기초 보건	12264	코로나19 통제	267.4	중등교육	11320	중고등학교교육	99.1
농업	31120	농업개발	243.7	보건 일반	12110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86.1
고등교육	11420	고등교육	226.3	기초 보건	12281	보건 인력 개발	51.4
기초 보건	12230	기초보건인프라	202.9	기초 보건	12250	전염병 관리	45.7
농업	31140	농업용 수자원	194.5	교육 일반	11110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33.8
기타다부문	43040	농촌개발	176.6	기초 교육	11240	취학전 교육	32.7
보건 일반	12191	의료서비스	147.6	기초 보건	12240	영양	29.4

주: 2020년 고정가격 기준 유·무상 ODA 총 집행액임

자료: OECD CRS DB (검색일: 2023.4.25).

86) OECD CRS에서는 성인 문해교육을 성인 대상 비정규 교육(basic life skills for youth and adults)으로 분류하고 있음.

나. 종합 결론

■ 한국 중점협력국 중 최저개발국의 경제·사회적 지수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차원에서 남아시아가 가장 높은 진척도를 보였으며, 지수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HAI 달성도가 가장 높은 편으로 분석됨(그림 20 참고).

- 최저개발국 졸업 가능성이 높은 남아시아의 경우, 주요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기간 내 졸업 가능성이 낮은 아프리카의 경우 달성이 부진한 부분을 개발협력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로 비교했을 때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들의 졸업요건 달성 정도가 가장 빠르며, 이어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순임.
- 지수별로 분류할 경우, 전반적으로 HAI 달성도가 높은 반면 1인당 GNI 달성도가 가장 낮음.
 - 2021년 기준 HAI 기준(66 이상)을 충족한 국가는 7개국, EVI 기준(32 이하)을 충족한 국가는 6개국, 1인당 GNI 기준(1,222달러 초과)을 충족한 국가는 5개국임.

그림 20. 한국 중점협력국 내 최저개발국 졸업기준 종합 지표(2021년)

1인당 국민소득(GNI) USD		인간자산지수(HAI) 지수		경제·환경취약지수(EVI) 지수	
우간다	670	에티오피아	55.3	세네갈	43.0
르완다	784	우간다	57.8	탄자니아	34.7
에티오피아	832	탄자니아	61.1	에티오피아	34.3
네팔	1027	세네갈	66.4	르완다	32.3
탄자니아	1031	르완다	67.6	캄보디아	30.6
미얀마	1263	라오스	72.8	우간다	29.1
세네갈	1370	미얀마	73.9	방글라데시	27.2
캄보디아	1377	캄보디아	74.3	라오스	27.0
방글라데시	1827	네팔	74.9	네팔	24.7
라오스	2449	방글라데시	75.3	미얀마	24.3

주: 색이 진해질수록 1인당 GNI 1,222달러 이상, HAI는 66 이상, EVI는 32 이하 등 졸업요건을 충족한 국가임.

라오스의 경우, 소득에만 기초한 졸업 규정(IOGR)에 의해 1인당 GNI 2,444달러 이상 달성함.

자료: United Nations(2021), 'Handbook on the LDC Category,' p. 86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검색일: 2023. 2. 14).

■ 특히 아프리카 5개국은 국가별 HAI 및 EVI 편차가 큰 상황으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그림 21 참고).

- 아시아 5개국은 모두 1인당 GNI, HAI, EVI를 대부분 충족했으나, 아프리카 5개국은 EVI와 HAI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국가가 없는 상태임.
- [그림 21]에 따르면 아시아 5개국은 HAI와 EVI 수치가 대부분 유사해 4사분면에 진입한 반면, 아프리카 국가는 국가별 편차가 큰 상황이므로 해당 부족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세네갈의 경우 HAI는 달성했으나 EVI가 달성 기준인 22 이하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 환경 및 경제 분야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에티오피아와 우간다는 반대로 EVI는 양호하나 교육 및 보건 분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세네갈은 EVI 달성을 적극 지원하고, 에티오피아 및 우간다는 HAI 달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한편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는 1인당 국민소득, HAI, EVI 달성 정도가 모두 낮아 단기간 내 최저개발국 지위 졸업 가능성이 가장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단, 에티오피아의 경우 경제 규모 자체는 아프리카에서 상위권일 정도로 크나 높은 인구수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HAI 및 EVI 개선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 국가 중 최저개발국 졸업 기준을 단기간 내 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르완다이며, 2021년 검토 기준 HAI를 달성하고, EVI도 졸업요건에 근접한 수준임.

그림 21. 한국 중점협력국 내 최저개발국 경제·사회 발전 현황(2021년)



주: 붉은 선은 HAI는 66이상과 EVI 32이하 기준을 나타내며, 원의 크기는 1인당 GNI에 비례함. 음영표시된 영역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임.

자료: UN LDC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

■ 한편 아시아 5개국은 최저개발국 졸업 후 무역 및 투자 환경 부문에 대한 구조적 전환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역시 주요 정책과 해당국의 전환 정책을 연계해 최저개발국의 구조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방안 수립 및 실질적 경제협력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그림 21 참고).

- 최저개발국 지위를 졸업한 국가들의 순조로운 경제 구조 전환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무역 및 투자

증진 △국제 금융 접근성 향상 △견고한 국내 자본 시장 구축을 통한 인프라 투자 방안 마련 △기후변화 및 친환경 정책 마련 관련 지원이 필요함.⁸⁷⁾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은 최저개발국 대상 특혜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저개발국 지위를 졸업한 국가는 무역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를 통해 수출 활성화 및 무역구조 개선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아시아 중점협력국들은 대부분 1인당 GNI, HAI, EVI 졸업요건을 1회 이상 충족한 상황이므로, 해당 국가가 최저개발국 졸업 후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는 졸업을 앞둔 3개 중점협력국(방글라데시, 라오스, 네팔) 대상 ODA 지원은 활발하지만, 경제 협력은 다소 미미하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 및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이들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방글라데시는 풍부한 인프라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섬유산업 강국으로 다양한 글로벌 의류 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하고 있으며, 최근 H&M은 방글라데시가 LDC 졸업과 함께 관세를 부과하게 되더라도 가장 안정적인 생산지임을 강조함.⁸⁸⁾
- 최저개발국 중 EVI 및 HAI 달성도가 높은 국가들은 국민소득이 빠르게 늘어나고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제조업 분야 발전과 인프라 건설 등에 경제성장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캄보디아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뿐만 아니라 2022년 12월 1일부터 한-캄보디아 FTA 발효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따라 한-캄보디아 FTA 활용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협력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전략인 △경제·사회 발전 기반 조성 △녹색 전환 선도와 연계해⁸⁹⁾ 최저개발국의 경제 구조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KIEP

87) United Nations, ‘LDC-specific mechanisms and suppo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5. 2).

88) The daily star, ‘H&M has big sourcing plan for Bangladesh,’(검색일: 2023. 5. 3).

89) ODA KOREA, ‘주요정책문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5. 2).

참고문헌

[국문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2a. 「르완다 국가협력전략」.
 _____. 2022b. 「세네갈 국가협력전략」.
 _____. 2022c. 「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
 _____. 2022d. 「네팔 국가협력전략」.
 _____. 2023a. 「에티오피아 국가협력전략」.
 _____. 2023b. 「우간다 국가협력전략」.
 _____. 2023c. 「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
 김미림. 2019. 「라오스의 경제 현황 및 한·라오스 경제협력 방향」. KIEP 기초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은석, 유애라. 2023. 「제5차 최저개발국회의(LDC5)의 주요 의제와 정책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준영. 2017. 「미얀마 2016: 새로운 시대의 시작, 불안한 미래」. 한국동남아학회.
 정재완, 김미림. 2019. 「캄보디아 경제 특징과 한·캄보디아 경제협력 방향」. KIEP 기초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문자료]

- Chaudhary *et al.* 2016. Deforestation in Nepal: Causes, consequences and responses.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hazards, risks, and disaster,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Hazards, Risks, and Disasters.
 Dorosh *et al.* 2023. COVID-19 and the economic recovery in South Asia: Economywide modeling scenarios for Bangladesh and Nepal.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 2021. Ten Years Development Plan: A Pathway to Prosperity.
 Hasan *et al.* 2019. Water pollution in Bangladesh and its impact on public health. ScienceDirect.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2015. Vision 2050.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2021. National Five Year Development Plan 2021/22-2025/26, FYDP III.
 National Planning Authority. 2013. Uganda Vision 2040.
 _____. 2020. Third National Development Plan (NDP III) 2020/2021-2024/25.
 Planning Commission. 1999. The 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
 Republique du Senegal. 2018. Plan Senegal Emergent - Plan d'Actions Prioritaires 2019-2023.
 Sawtee. 2022. Nepal's graduation from the LDC category.
 The Republic of Rwanda. 2017. 7 Years Government Programme: National Strategy for Transformation (NST 1) 2017-2024.
 UNESCAP. 2021. 'Structural transformation, LDC graduation and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 policy options for Cambodi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nd Myanmar.'

United Nations. 2021. 'Handbook on the LDC Category.'

World Bank Group. 2015. Ethiopia's Great Run: The Growth Acceleration and How to Pace It. World Bank, Washington, DC.

World Bank. 2021. 'Gross domestic product 2021.'

[언론/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2. 「한국-라오스 보건의료 포괄적 협력 강화방안 논의」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73749(검색일: 2023. 4. 19).

외교부. 2023. 「이도훈 제2차관, 제5차 유엔 최저개발국 총회 참석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최저개발국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의지 표명」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842>(검색일: 2023. 4. 18).

정책브리핑. 2023. 「[보도자료]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1646>(검색일: 2023. 4. 18).

The Business Standard. 2021. 'Myanmar declines to graduate from LDCs. (Feb 27). <https://www.tbsnews.net/world/myanmar-declines-graduate-ldcs-208279>(검색일: 2023. 2. 15).

[온라인 자료]

외교부. '방글라데시 델타 플랜 2100(Bangladesh Delta Plan 210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3. 4. 4).

ODA Korea. <https://www.odakorea.go.kr>(검색일: 2023. 2. 13).

Bangladesh Planning Commission. 2020. "8TH Five Year Plan"(검색일: 2023. 4. 3).

Bangladesh Textile Mills Association, 'CONTRIBUTION OF TEXTILES' <https://btmadhaka.com/>(검색일: 2023. 3. 27).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 'Cambodia.' <https://climateknowledgeportal.worldbank.org/country/cambodia/vulnerability>(검색일: 2023. 3. 2).

_____. 'Lao PDR.' <https://climateknowledgeportal.worldbank.org/country/lao-pdr/vulnerability>(검색일: 2023. 3. 2).

_____. 'Myanmar.' <https://climateknowledgeportal.worldbank.org/country/myanmar/vulnerability>(검색일: 2023. 3. 2).

"Dip in per capita income challenge to Nepal's graduation to developing country status." 2021. The Katmandu Post. (Mar 08). <https://kathmandupost.com/national/2021/03/08/dip-in-per-capita-income-challenge-to-nepal-s-graduation-to-developing-country-status>(검색일: 2023. 3. 28).

Lao PDR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21-20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9. 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Cambodia. 'Rectangular Strategies.' <https://www.mfaic.gov.kh/Home/RectangularStrategies>(검색일: 2023. 4. 19).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2018.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2018 - 2030)'. <https://www.mopf.gov.mm/en/page/planning/foreign-economic-relations-ferd/692>(검색일: 2023. 4. 19).

- Mujib Climate Prosperity Plan. <https://mujibplan.com/>(검색일: 2023. 4. 4).
- Nepal Tourism Board. <https://ntb.gov.np/>(검색일: 2023. 3. 28).
- Notre Dame Global Adaptation Initiative. 2021.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dex"(검색일: 2023. 3. 29).
- OECD. 2014. "Assessment of Implementation of the Istanbu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LDCs for the Decade 2011-2020"(검색일: 2023. 4. 3).
- Oxford Economics. 2023a. "Country Economic Forecast Uganda." (Feb 28). <https://my.oxfordeconomics.com/chapters/6bA86A8bB71141d9A0D742/UgandaGrowthisexpect?SearchTerms=uganda>(검색일: 2023. 4. 20).
- _____. 2023b. "Country Economic Forecast Tanzania." (Feb 24). <https://my.oxfordeconomics.com/reportaction/0654796b0035443c85d914/Toc?SearchTerms=tanzania>(검색일: 2023. 4. 20).
- _____. 2023c. "Country Economic Forecast Rwanda." (Jan 26). <https://my.oxfordeconomics.com/chapters/e5697f5C5A184037812Bc2/RwandaAgrowthhotspot?SearchTerms=rwanda>(검색일: 2023. 1. 30).
- "PIX: 3,000 people rescued in Sikkim." 2011. Rediff. (Sep 20). <https://www.rediff.com/news/slide-show/slide-show-1-devastated-areas-near-sikkim-quakes-epicentre-remain-cut-off/20110920.htm>(검색일: 2023. 3. 28).
- Sayaka Horiuchi. 2019. 'Causes of Child Mortality and Health Issues in Laos.' https://www.childresearch.net/papers/health/2019_02.html(검색일: 2023. 4. 19).
- "The impact of COVID-19 on Global FDI and Bangladesh Economy." 2021. The daily Star. (June 1). <https://www.thedailystar.net/law-our-rights/news/the-impact-covid-19-global-fdi-and-bangladesh-economy-2102717> (검색일: 2023. 3. 27).
- UNICEF. 2016. "Operational Plan For "NATIONAL NUTRITION SERVICES" (검색일: 2023. 4. 3).
- _____. 2018. "Stop stunting in South Asia - Part1"(검색일: 2023. 3. 28).
- United Nations.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pad/least-developed-country-category.html>(검색일: 2023. 4. 19).
- United Nations. 'Least Developed Countries Category.' <https://www.un.org/ohrrls/content/ldc-category>(검색일: 2023. 2. 14).
- United Nations. 2023. "5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5)"(검색일: 2023. 4. 19).
- "What Bangladesh needs to accomplish to be an upper-middle income country." 2022. "Key Highlights: Country Climate and Development Report for Bangladesh"(검색일: 2023. 3. 29).
- World Bank. 2007. "Landlockedness, Infrastructure and Trade: New Estimates for Central Asian Countries" (검색일: 2023. 3. 29).
- _____. 2021. "Personal remittances, received (% of GDP) - Nepal"(검색일: 2023. 3. 27).
- _____. 202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value added (% of GDP) - Nepal"(검색일: 2023. 3. 27).
- _____. 2022. "Key Highlights: Country Climate and Development Report for Nepal"(검색일: 2023. 3. 29).
- _____. 2022. The daily star. (May 22.) <https://www.thedailystar.net/views/opinion/news/what-bangladesh-needs-become-upper-middle-income-country-3029046>(검색일: 2023. 3. 28).
- WTO. 2022. "Textiles and clothing in Asian graduating LDCs: Challenges and options"(검색일: 2023. 3. 28).